

고난주간예배 '십자가, 사랑의 완성'



사진은 지난 2019년 고난주간 십자예배.

4월 3~7일 오후 8시 국내 온누리교회 본당 이주연, 김영련, 박종길, 강부호, 이재훈 목사 설교

2023 고난주간예배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 시작된다. 4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후 8시에 진행된다. 4월 3일(월)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4일(화) 김영련 목사(산호세온누리교회), 5일(수)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6일(목)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7일(금)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CGN과 온

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2023 고난주간예배 실황을 생중계한다. 책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QR 코드(상단)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2023 고난주간예배에 참석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매일 한 끼 이상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불필요한 미디어

(TV, 인터넷, 영화, 게임, SNS 등)도 자제한다.

고난주간 온누리교회 로비에는 '회개의 십자가'가 설치된다. '회개의 십자가'에 개인의 참회와 회개의 기도제목을 적은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을 한다. 이 기간 순예배는 고난주간예배 참석으로 대체한다.

2023 고난주간예배에서는 요일별 죄 회개기도를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생명 경시에 대한 죄 회개(전쟁, 살인, 인종차별 등), 수요일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죄 회개(환경파괴, 동물학대, 진화론 등), 목요일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교회의 죄 회개, 금요일 거룩과 성결로 살지 못했던 개인의 죄 회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 3월 26일 예배에서 "고난주간예배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면서 2023 고난주간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2023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마지막 주제는 '인간'이다. 4월 2일부터 9일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제안하는 작은 실천은 '현혈하기',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기 영상 시청하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기 등이 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한 성도들은 '음식 남기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의 건강한 습관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다.

'달려라풍당' 참가자 모집

4월 23일까지 네이버폼

CGN이 2023 '달려라풍당' 참가자를 모집한다.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4월 23일(일)까지 네이버폼(QR코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 달려라 풍당은 4월 29일(토)부터 5월 28일(주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걷기, 러닝,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거리 측정 가능한 운동에 참가하고, '트래킹' 앱으로 누적된 거리만큼 CGN을 후원하면 된다. 2023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고고 바이블> 글로벌 버전, 키즈 콘텐츠 <우리 몸으로 풍당>, <바이블북: 성막 대작전> 제작과 풍당교회학교 사역 지원에 사용한다.

지난해 '달려라풍당'에는 4천 5백여 명이 참가했다. 그 후원금으로 교회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105개 교회에 스마트TV와 예배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풍당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콘텐츠를 제작해 매주 업로드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9일 CGN 개국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CGN 대표 이용경 장로, 임직원, 후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이 틈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전하는 미디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4월 16일과 23일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환경도 보호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굿월스토어(밀알복지재단) 기증 캠페인을 4월 16일(주일)과 23일(주일) 한다. 서빙고, 양재, 부천(16일만), 수원, 대전, 인천, 강동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서빙고, 양재, 부천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수원, 대전, 인천, 강동은 목회행정실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방문수거도 한다. 콜센터(1533-0091)로 전화하면 굿월스토어 직원들이 방문해서 물품을 수거해간다. 기증 가능 물품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 신발, 잡화, 도서, 음반, 생활용품, 소형 가전제품 등이다. 문의: 1533-0091

당 회

일시: 4월 8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본당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주요안건: 2022년 감사보고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십자가의 아이러니

마 27:39~44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어 진노의 자녀 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살아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고, 원리가 되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서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던 로마 군병들, 사형을 언도했던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를 압박했던 유대 지도자들, 지나가는 군중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특히 로마 군병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내뱉은 조롱의 말들이 아이러니로 나타납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시치미를 뚝 떼다’, ‘위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고 무지하게 내뱉은 말들이 그대로 나타날 때,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 전체가 그것을 나타내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이라고 조롱받으셨던 예수님은 실제 왕이셨다

첫째, 군병들에 의해서 왕이라고 조롱받으셨던 예수님은 실제 왕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28~30절).

27절 이하에 나타난 로마 군병들의 행동은 평상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관저 앞으로 들어오자 모든 군병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마치 왕이 입는 화려한 가운처럼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씌우고, 왕이 휘두르는 홀과 같은 갈대를 들게 하고, 모두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었습니다. 마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화려한 옷과 홀, 왕관을 쓴 모습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평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에게는 하지 않는 매우 특이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예수님이 진정 세상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위에 죄패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든 죄수의 죄목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 죄패를 정하는 책임은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 죄패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만들어서 당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죄명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죄패에 이렇게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다.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패를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칭’이라고 해야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써달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칭이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자칭’이라고 쓰면 예수님 개인의 문제가 되지만, ‘자칭’이라는 말을 뺀으로써 유대 민족 전체를 조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칭이 아닌 실제 유대인의 왕처럼 만듬으로써 “봐라. 이것이 유대인의 왕의 종말이다. 이 나라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되었으니 유대 민족은 얼마나 형편없는 민족인가”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자칭’이라는 말을 뺀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머리에 쓴 죄패대로 그분이 왕이셨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모든 구체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이러

니로 나타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썼지만, 그 또한 하나의 아이러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둘째, 다른 이들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고 조롱받았던 예수님은 실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 주겠다’”(41~42절).

유대 지도자들이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능력,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영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또한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어디 한 번 내려와 보라지”하는 것도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처럼 유대의 지도자들도 아이러니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그는 다른 이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가이바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가이바는 다른 속셈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신들의 거적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 민족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예수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역설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아이러니가 나타날 것입니다.”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고 지도자들을 거짓 선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한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는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포장하고, 예수님을 빨리 제거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짓 선동이 실제로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음으로 그들을 살렸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도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버리심을 절규했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43절)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46절).

세 번째 아이러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 당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에 달리고 감추이신 하나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나보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나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씨는 “내 하나님, 내 하

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실제로 버리신 사건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저주의 사건이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어둠 속에 버리시고, 죽음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버리시면 안 되는데 왜 버렸습니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버림 받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탄, 탄식,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을 버릴 만큼 놀랍고 크신 사랑이군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실 만큼 놀랍고 크신 사랑이시군요”라는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렇게 버리셨는데 어떻게 신뢰할까?’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쏟아낸 모든 말들을 가려내면 아이러니가 많이 나옵니다. “저가 성전을 헐고 3일만 짓는다고 한다”는 조롱도 실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지으셨습니다. 모든 아이러니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인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고 너를 구원했다.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믿어야 할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에 의해서 더 밝게 빛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였기에 예수님을 모르고 내뱉은 이들의 조롱이 모두 아이러니로 나타나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

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모르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모르기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다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도 언젠가 그들의 삶 속에 아이러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아이러니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역사상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기 위해 글을 쓰다가 도리어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갈 때 놀랍게도 세상 가운데 아이러니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역설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러니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아이러니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구의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무신론으로 전환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게 진화론이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가설이다. 영국의 식민지 확장을 위해 전 세계의 지질, 동식물, 기후, 해역탐사의 임무를 맡은 비글호의 2차 세계 일주(1831~1836년) 항해에서 다윈은 생물학 분야 조사원으로 승선했다. 전 세계 동식물들을 비교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귀국 후 조사한 내용을 집대성해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같은 종의 여러 개체가 생존경쟁을 하는데,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들만 살아남으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원래와는 그 형태가 달라진 새로운 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 가설이다. 여기에 영국의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동조해서 하나님의 창조 없이도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진화론의 이념을 수립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때 마르크스는 영국에서 <자본론>을 집필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다윈의 <종의 기원>이 기

독교의 근본을 허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다윈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1867년 발간된 그의 저서 <자본론-1>을 헌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다윈 아내의 반대로 무산된다.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측면에서는 초기부터 아주 협조적인 공명을 이루면서 진화의 이념을 발달시켰다.

진화론을 공교육 교실에서 배운 세대들은 진화의 이론이 흔들릴 수 없는 진리라고 생

장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화론은 소진화(microevolution) 관찰로 대진화(macroevolution)를 추론한 가설이다. 소진화는 같은 종 안에서의 형태변화를 말한다. 같은 종(species)이란 암수가 서로 교배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그 자식들이 다시 교배해서 다음세대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단위의 생물군이다. 소진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양과 양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모양

의(Neo-Darwinism)'라는 40년 동안 이어온 정론(thesis)이 많은 반론(anti-thesis)에 부딪히자 이에 대응하는 진화론자들의 합의(synthesis) 도출을 위한 회의였다. 이 회의를 참관한 과학전문 기자 로저 레윈이 잡지 <Science>에 기고한 글은 진화론자들의 혼란스러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기사 제목부터 '진화론 도마 위에 오르다(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이다. 기사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카고 회의의 핵심 질문은 소진화의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을 대진화 현상의 설명을 위해 외삽(extrapolation)할 수 있는지였으며, 그 결론은 명백하게 그럴 수 없다고 제시되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토론할 때 우리는 소진화와 대진화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종 안의 소소한 변화가 축적된 것(소진화)이 대진화(종을 넘어서는 변화)를 설명하는데 결코 사용될 수 없다는 이 회의의 결론을 사용하면 소진화의 예를 이용한 진화론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창세기 1장), 노아의 홍수 때에도 종류대로 보존하셨다(창 6~8장). **하나님의 선언을 믿을 것인지, 과학을 빙자한 무신론의 이념을 믿을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을 것인지 과학을 빙자한 무신론의 이념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공교육을 마치면 진화론에 세뇌되어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이 혼란의 시기 부모와 목회자,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거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준다면 그것을 버리는 게 지적으로는 정직한 것이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볼 진화론의 문제점을 통해 다음세대를 설득할 무기를

이 다르다. 하지만 서로 교배해서 후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이다. 사람의 경우도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이다. 필자는 치과대학에서 사랑니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게 진화라고 배운 적이 있다. 그러나 사랑니 유무와 관계없이 인간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1980년 시카고의 Field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화론자들에게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줄리언 헉슬리가 1942년 주장한 '신다윈주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크리스텐덤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

크리스텐덤(christendom)이란 정치, 경제, 사회, 가정의 영역까지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일컫는다. 교회는 원래 로마제국 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았다. 예배를 금지하는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두었고, 로마 신을 거부하면 대량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그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로마의 가혹한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인들에게 소위 크리스텐덤의 도래는 분명히 신앙적 자유와 기독교 승리의 상징이 되는 역사였다. 종교 박해가 중단된 것뿐 아니라 압수했던 재산을 돌려주었고, 성직자들은 세금 등의 공적 의무를 면제받았으며 봉건제도에서 귀족들과 함께 특권층으로서 부와 명예를 누렸다.

중세 천년을 지배해오던 크리스텐덤 시대는 기독교의 극심한 타락, 자유적 사고 및 이성으로의 복귀를 기치로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과 시민 혁명 등으로 서서히 사라지다가 20세기 말부터 포스트 크리스텐덤(post-christendom) 시대로 전환되었다. 현대는 무신론적 사상

에 기반한 법적 제도의 침입이 가속화되어 아예 안티크리스텐덤(anti-christendom)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기독교가 더는 세상의 사상과 문화의 주류가 아니다. 청년들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실제적인 인본주의적 철학에 더욱 매력을 느끼며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 땅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묘연해 보이고, 기독교인들의 어깨는 무기력으로 한없이 처지고 있다.

철학과 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희망의 불빛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와는 매우 다른 예수님의 크리스텐덤을 기억하는 것이다. 많은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 직전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눈에는 비참한 죽음과 패배로 귀결되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도래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프레임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탄생지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의 말구유였다. 그의 족보에는 왕족뿐 아니라 기생과 근친상간과 간통 당사자들이 버젓이 있다. 공생애는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세례와 하늘의 열림으로 시작되었고, 축약된 대신 괴로운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나라의 관료들은 엘리트 교육이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어부, 세리, 혁명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것이 시민의 자격이었다. 그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백성을 보고 왕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백성 대신 왕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크리스텐덤은 사실 인류의 역사에 없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는 크리스텐덤에서의 안일함이나 안티크리스텐덤 시대에서의 무기력함을 생각할 여유와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과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 시대 반기독교 국가에 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며, 인본주의 사

상이 만연한 대학가에도 소리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적인 기대나 한계에 관계없이 지금도 완성 되어 가고 있다. 기독교 인이라면 세상의 반기독교적 제도와 문화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언제나 그 모습은 예수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크리스텐덤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그리는 거창한 세상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담론은 매일 각자에게 주어진 소소하고 일상적인 삶의 조각에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담보되었으며 그의 부활로 확정된 크리스텐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여야 한다. 그것은 세상의 왕이 아닌 작고 낮은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신무한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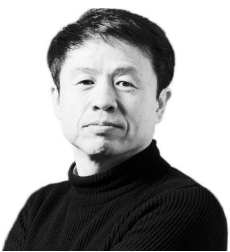
이단·사이비 OUT! 1. 신천지

경계와 예방, 깨어 근신하기!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피해와 그 대처법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파장이 거세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현혹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실체와 피해를 다뤘다.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폐단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연재 ‘이단·사이비 OUT!’ 지면을 마련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과 그 대처법을 설명한다. 첫 번째 순서는 ‘신천지’다.

/ 편집자 주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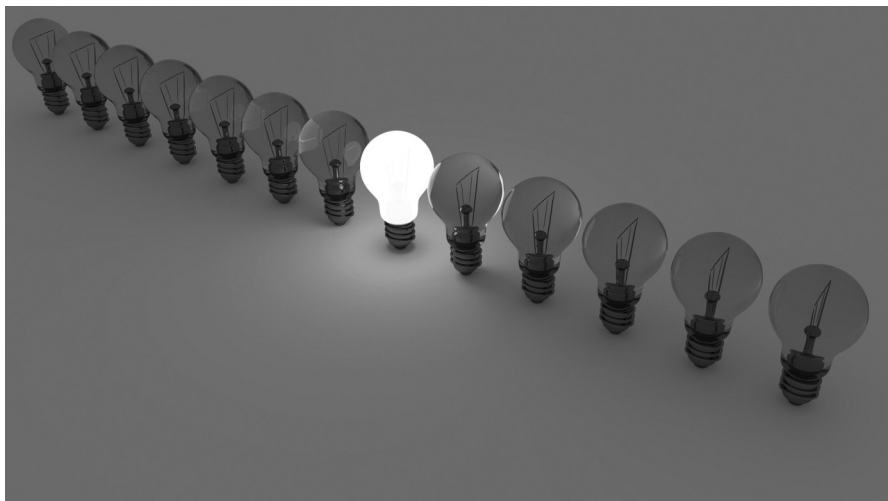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생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바이러스인 이단과 사이비 문제도 잘 이겨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소망한다. 이 글이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대처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신천지의 미혹(迷惑) 방법

신천지의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다. 과거 문제성 단체였던 장막성전(유재열을 정점으로 한 신흥종교, 유재열이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이삭장로교회로 이름이 바뀜) 등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다. 1990년대 초부터 산하 교육기관인 ‘무료성경신학원’을 앞세워 “성경의 모든 것을 3~6개월 만에 무료로 가르쳐 준다”면서 왜곡(歪曲)된 성경해석으로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고, 길거리 등지에서 상시로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부착하며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교회나 가정, 사회생활에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성경 지식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접근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비유로 성경을 풀어서 ‘선민적 우월의식’을 갖도록 만든다. 그로 인해 기성교회를 이탈하게 하고, 잘못된 성경관을 갖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 과천에 본부 교회를 두고, 지역별 12지파를 형성하고 있다. 2023년 현재 2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초기 바이러스 확산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현장 공여 등의 사회봉사로 다시금 그 세를 회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포교’로 여전히 불특정다수를 미혹하고 있다.

신천지를 말할 때 교주 이만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만희는 신천지 창시자다.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 주장한다.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난 이만희는 서울로 상경해 전도관, 박태선



씨의 신앙촌에 머물렀다. 당시 18세 학생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던 장막성전의 어린 종 유재열 씨의 집회에 참석한 이후 그를 추종했다. 그러나 1967년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이탈하고, 1971년 유재열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그런 그가 1980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했다.

〈신천지발전사〉에 따르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4장과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영계 보좌를 지상에 옮겨 놓은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24장로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와 신학원이 7교육장, 12지파로 나뉘어 있다.

신천지의 성경 교육은 초급(25과), 중급(40과), 고급(22과) 각 2개월씩 총 6개월 과정이다.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모두 통달하고 깨우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천지의 성경공부 방식은 정통 교회의 성경해석과 전혀 다르다. 소위 ‘비유 풀이’로 진행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면 비로소 신천지교회의 새신자 교육을 받는다.

신천지의 포교전략은 세밀하고 계획적이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 성도에게 접근한다. 포교방법을 교육하는 책도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신천지는 수단과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신천지의 포교방법에는 기성교회 성도 포교 외에도 기도원과 교회 집회 전도방법, 신학생과 대학생 전도방법, 열차나 버스, 전철 내 전도방법, 노방전도, 좌판 전도방법, 일가친척과 친구 전도방법, 직장 전도방법 등이 있다.

신천지는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상세한 포교지침서를 마련해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요즘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포교하고 있다. 그간 성경세미나 등의 위장 집회, 기성교회에 추수꾼(정통 교회에 위장 잠입한 신천지 성도)으로 잠입하는 방법, 기성교회 전체를 포섭하는 ‘산 옮기기’(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를 신천지로 옮김을 뜻함) 전도방법, ‘가나안 정복 7단계’(추수꾼의 교회 침투 전략), 정통 교회로 가장해 접근하는 ‘위장교회’까지 등장했다.

요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청년들을 포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는 당근마켓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서도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천지가 대구스타디움에서 10만 명 대규모 수료식을 개최한 적이 있는데, 수료식 이후 신천지는 ‘10만 수료’를 내세우며 포교를 이어가고 있다.

신천지에 의한 피해와 대처법

신천지에 의한 피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 피해다. 주로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가출해버리는 경우다. 현재 이단 피해자들의 숫자는 직간접적으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신천지의 교회 위장침투도 큰 문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다음 기성교회에 새신자로 위장 등록하고, 그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와해시킨다.

학원도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다. 신천지가 대학에서 활동하는 방법은 동아리 연합회 등을 장악하거나 동아리로 가장하는 방법 혹은 CCC 같은 기독교동아리에 침투하는 방법이 있

다.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대학교나 학교 근처 카페에서 최대한 미혹하고 있다. 온라인 피해도 빼놓을 수 없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청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신천지의 포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교회와 성도들의 대처가 필요하다.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이단에 관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단의 미혹과 전략에 대한 설교나 이단 대처 동영상 시청 등의 교육을 해야 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주보 광고를 내서라도 성도들에게 이단의 폐해와 경각심을 알릴 필요가 있다. 몇몇 교회 성도들의 경우 신천지 반대시위를 하거나 그 외 여러 방법을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라든지 청평지역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반대’ 등의 활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든 믿는 이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셋째, 언론의 대처가 필요하다. 현대종교, 온누리신문, CGN, CBS 등의 언론들이 신천지의 실상과 대처에 관한 보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넷째, 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이단 피해자는 이단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 전문기관에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과 치유를 돕는 상담 프로그램, 후속 교육, 예방 세미나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신천지 성도 수가 14만 4천 명(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시작되며, 신천지 신도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주가 사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계 구도의 권력 다툼 문제와 코로나19까지 맞물리면서 내부 단속을 위한 외부와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신천지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차분히 경계와 예방하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건투와 승리를 소망한다.

자녀 양육, 도와주세요!

따스하게 사랑하되 바르게 훈계하라!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하셨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는 청지기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

위를 대신해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훈계하는 지침을 찾아야 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성경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

치라”고 말한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 우선 ‘질서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곧 권위를 가르쳐야 한다. 부모 공경과 순종을 배운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자녀가 된다.

오늘날 문제 중 하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승이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그러우면서도 공의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모두 치르셨다.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동시에 때로는 단호한 태도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바르게 훈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성경적 부모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진리를 대신해서 자녀를 인도한다. 참된 권위를 경험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

장한다.

자녀를 훈육할 때는 주의할 게 있다. 부모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허용하고 통제할 때 엄마와 아빠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와 엄마가 다르게 가르치면 아이는 혼란을 느낀다. 서로 의견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지만, 자녀 앞에서만큼은 두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아빠가 자녀를 훈계하는데 엄마가 나서서 아이를 감싸고 돌거나 엄마가 허용하지 않던 일을 아빠가 쉽게 허용하면 아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조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부모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기와 의견이 달라도 아이 앞에서는 조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권위와 그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커갈수록 아이에게 허용과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어린 시절에 지나친 허용은 위험하다. 지나친 허용으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다. 자

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러다 사춘기 즈음 갑자기 통제를 받으면 분노가 폭발한다.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배은망덕한 사건 대부분이 부모가 방임형에서 갑자기 통제형으로 양육 태도를 바꿀 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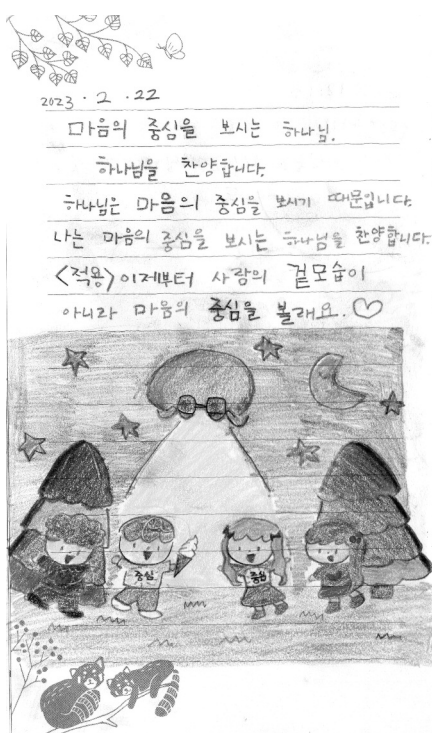
어렸을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아이 스스로 본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부터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자녀가 독립의 단계에 들어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후배 혹은 친구와 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36개월 이전에 모든 성격이 형성된다. 우리 속담에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허용과 통제를 균형 있게 잘 사용해야 한다.

따스하게 사랑하되 바르게 훈계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그렇게 양육 받은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다.

우리들 작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볼래요.

/ 한해와 학생(강동 꿈땅, 초등4)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3월 29~30일 본문(삼상 30:3~8, 삼상 30:22~24)



1.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잡아갔어요. 다윗과 군사들이 소리 내어 울었어요. 화가 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삼상 30:3-8)

- ① 백성들에게 화를 냈다.
- ② 백성들이 없는 곳으로 도망쳤다.
- ③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봤다.
- ④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아말렉을 쫓아갔다.

2.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모두 찾아왔어요. 그런데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들에게 전쟁에서 가져온 물건을 나눠 주는 일을 반대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나요?(삼상 30:22-24)

- ① 전쟁에 다녀온 사람만 물건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 ② 전쟁에 다녀온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고 약속했다.
- ③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 ④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해서 물건을 나누자고 했다.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43. 하나님이 지으신 꽃들



새 이름 CGN!

CGN의 의미와 비전 그리고 사명

CGNTV에서 CGN으로 거듭났다. CGNTV가 사명을 'CGN'으로 변경하고 또 한 번 비상한다. TV를 뛰어넘어 모든 미디어로 '어디서나 모두에게'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새 이름 CGN의 의미와 비전, 그리고 사명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CGNTV는 2005년 개국했다. 미디어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정체성이다. 복음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달려가는 가장 광범위한 도구가 바로 CGNTV였다. CGNTV가 가장 멀리 닿을 수 있는 위성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오로지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CGNTV는 그동안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거듭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성장과 성숙을 거듭했다. CGNTV는 위성 과 인터넷 방송을 시작으로 케이블, IPTV, 유튜브를 거쳐 국내 최초 기독 OTT 플랫폼 '풍당'을 론칭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CGNTV만의 역동성을 자랑했다.

이제 CGNTV가 TV를 뛰어넘는다. 사명을 CGN으로 바꾸고 모든 미디어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번에는 모든 미디어를 활용해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

더 자유롭게 어디서나 모두에게

새 이름 CGN은 콜론(:)이 모티브다. 이는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CGN의 자유로운 확장성을 의미한다.

콜론은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한다. 대본에서 등장인물과 대사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콜론 뒤 대사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CGN 뒤에 붙는 말들이 CGN의 정체성을 만든다. CGN은 다양한 사역과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새 이름 CGN 로고에 더 밝아진 옐로우색을 사용했다. 이는 CGN의 변함없는 열정과 용기를 나타낸다. CGN은 복음이 필요한 모두에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라는 상징도 있다.

CGN은 사명을 '선교하는 미디어'다. CGN은 복음이 필요한 어디서나 통로가 되고, CGN과 함께하는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꿈꾸고 있다.

CGN의 존재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국경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와 언어, 세대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선교 도구는 CGN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선교하는 미디어의 사명을 붙들고, 그곳이 어디든 끝까지 달려가는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용기, 창의, 협력

CGN의 세 가지 가치가 있다. 용기(Courage), 창의(Creative), 협력(Collaboration)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진리를 위한 용기'다. CGN은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어디서나 모두에게 진리가 전해지도록 노력한다. 진리를 분별하고, 지키면서 용기 있게 나아간다.

둘째, '복음을 위한 창의'다. 이는 한계를 넘어 작은 일에도 더 나은 길을 찾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CGN의 다짐을 상징한다.

셋째, '선교를 위한 협력'이다. CGN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기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한다.

더 담대하게 'CGN'

위성방송으로 시작한 CGN의 역사는 담대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위성방송을 광고 없이 순수 복음방송으로 시작한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해 보였다.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CGN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도전했다. CGN은 HD방송 전환, 유튜브 채널 오픈 등 짧은 역사에서 정말 다양한 도전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 기독 OTT '풍당'을 론칭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고, 검증된 복음 콘텐츠를 확보하려면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극적인 콘텐츠, 무분별한 이단과 사이버 콘텐츠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진리를 만나도록 돕는 플랫폼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CGN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기독 OTT '풍당'은 순수 복음 콘텐츠만 담은 플랫폼이다. 한국 교회를 돕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 기독 OTT '풍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공간과 언어를 뛰어넘어 글로벌 OTT를 꿈꾼다. 기독 OTT '풍당'을 통해서 어디서나 복음이 전해지고,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CGN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다.

더 친숙하게 'CGN'

CGN은 늘 복음이 닿는 대상을 최우선 생각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처럼, 복음이 이 시대의 언어로 친숙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한다. 그 실천 방법으로 다음세대 눈높이에 맞춘 영상을 제작하고, 짧지만 강렬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만든다.

CGN의 콘텐츠는 영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게 사명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CGN은 건강한 한국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와 소외 계층을 돕는 캠페인도 하고 있다. CGN은 미디어가 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 그 자체다.

CGN의 새로운 소망은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가 일어서며,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CGN은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늘 작은 일에도 더 나은 길을 찾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다.

더 하나 되어 'CGN'

CGN은 선교사를 위한 방송으로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땅끝에서 목 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했고, 해외 선교사와 한인 디아스포라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돕는 복음의 통로 역할도 했다. 전 세계 6개국에 설립된 해외 지사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CGN 해외 지사에서는 현지 선교사와 협력해 사역하고 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CGN 해외 지사에서는 현

지 맞춤 콘텐츠를 제작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CGN 혼자 해낼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 현지 교회, 선교 단체, 한국 교회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전 4:12)처럼, 선교를 위한 동역이 큰 힘을 발휘한다. 선교라는 순전한 목적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될 때 한국 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다음세대의 마음이 움직여지며, 선교사가 동력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 CGN은 선교지, 교회, 커뮤니티를 복음 안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완수할 것이다.

기도와 후원으로 'CGN'

CGN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CGN은 상업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로지 후원만으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한다. 사역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도 상업광고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는 '순수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다.

CGN이 지금까지 미디어 선교를 이어올 수 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CGN 임직원들과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중보기도팀 '드림온맘', 그리고 4만 3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매번 세상의 논리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앞으로도 CGN이 순수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에 동참하자.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창 44:18)

한 남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가 자기의 발을 들어 거꾸로 세운 다음 물통에 집어넣었다가 울면서 발바닥 치니까 다시 들어 올렸다. 그 충격적인 기억을 가슴에 묻어둔 채 자라는 동안 아버지께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남자가 결혼하고 이제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 봐야겠다 싶어 어느 날 아버지께 물었다.

“아버지, 그때 왜 저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질문에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 사실은 그 남자가 놀다가 발을 헛디뎈 물통에 빠졌고, 아버지가 재빨리 꺼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앞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뒷부분만 뚜렷하게 남았다. 엉뚱한 트라우마를 가슴에 품고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것이다.

성경에도 왜곡된 기억으로 아버지를 오랫동안 오해한 인물이 있다. 바로 요셉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뒤에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이집트의 총

리가 될 때까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왜일까?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 그가 죽었다고 속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버지가 자신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고, 그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로 팔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내쫓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속았고, 형들의 거짓말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알 길이 전혀 없었다. 이집트에 온 요셉은 집에서 쫓겨난 상황을 자주 곱씹었을 것이다. 그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을 것이다.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고도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아픔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요셉은 여전히

형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절도 혐의로 체포된 동생 베나민을 놓아달라고 탄원하는 유다를 보고 요셉은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하고 진실을 알게 된다. 유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가족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요셉은 유다의 말에서 하나의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오래전 사라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때의 상실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어! 오히려 그 오랜 시간을 나를 위해 슬퍼하고 계셨구나!”

그제야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힌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창 45:4).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진솔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다니 요셉은 유다와 같이 형들에게 가까이 와 달라고 부탁한다. 유다가 용기 내어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창세기〉 후반부가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다룬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은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 통감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간 유다의 행동은 요셉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가정의 아픔을 안고 있던 야곱 가족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조바울 목사
(강남대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십자가의 고난, 영광스러운 부활

4월 3~9일

고난주간& 부활절 QT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의 길로 걸어가신다. 그 길에서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데, 이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로 인정받는다. 여인의 헌신은 배신자 가롯 유다와 대비된다. 예수님은 마

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신다. 고난과 죽음을 앞둔 급박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사명을 완수하시는 모습은 어떠했는지 묵상하자.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 제자들은 이를 낭비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해석하신다. 이 일 이후 가롯 유다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빵)과 잔으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신다. 만찬 이후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실패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 맞추니 칼과 몽둥이를 가진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간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으로 인해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요, 구약 예언의 성취다. 십자가 길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불의와 타협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땀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신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

게 왜 중요한 사건인지 묵상하며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는다. 빈 무덤에서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일깨우려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다. 한편 빈 무덤 소식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해 거짓 소문을 유포시킨다. 그러나 빈 무덤의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 드렸다. 헌신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해 보자.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깨어 준비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할 힘을 구하자.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지만, 나를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인내와 사랑과 순종으로 잘 통과하자. ▶고난의 십자가와 죽음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길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보상에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온전한 삶을 위해서!

저는 어린 시절 책 읽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마음은 여리고, 풀과 자연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이혼으로 마음이 망가지는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저의 영혼과 마음이 점차 공포와 절망, 우울로 얼룩졌습니다. 제 삶의 방향이 증오와 미움으로 점철되어갔습니다. 복수와 원망, 두려움의 굴레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하게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두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삶에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안에 남아 있는 증오와 미움,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약함과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홍태근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 ‘호모 페카토르’(homo peccator)이다. 기도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도구다. 유진 피터슨은 책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서문에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being), 존재가 되어 가기(becoming) 위한 도구”라고 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지만, 인간이 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는 많지 않다. 인간으로 존재하고,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이자 도구가 기도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되어 간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통로이자 도구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깨닫는 도구이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를 나를 위한 수단,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만족시키거나 내가 얻을 유익을 바라며 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하는 이유다.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도다.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기에 기도는 존재하고(being), 존재가 되어 가는(becoming) 방법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들고 서운할 수 있

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넓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여러 통로로 듣는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신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말씀에 묵상하고 적용하는 큐티, 말씀을 읽는 통독이 중요하다. 또 찬양으로도 응답하신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듣는 게 중요하다. 때로는 묵회자, 순장, 동역자 등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어서 때로 지나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서 모른 척하며 지나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해야 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

에 던져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

“...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단 3:17~18).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나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자.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신경훈 목사
(갈렙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결혼의 이상과 현실을 수용

페루 쿠스코 비니쿤카는 일곱 색깔을 내는 무지개산으로 유명하다. 이곳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발 고도 약 5천 미터 높이에 있고, 교통이 좋지 않아서 산 정상 부근에서 약 2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 특히 마지막 구간은 평지를 걷는 것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 고산병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구간이다. 차오르는 거친 숨을 견디며 오르고 또 올라야 만날 수 있는 곳이 무지개산이다. 이곳은 만년설이 녹아서 발견된 곳으로 산의 흙에 포함된 여러 광물질이 화학 반응을 거쳐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곳을 보기 위해 한 여행자가 길을 떠났다. 이 여행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많은 수고와 불편함을 이기고 오르고 또 올랐다. 무지개산 정상을 얼마 남기지 않고 걸어갈 즈음에는 고산병 증세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고통의 극한을 느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동안 많은 사진과 홍보 영상에서 봤던 무지개산의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여행자는 걷고 또 걷고, 오르고 또 올라서 결국 무지개산에 도착했다. 수많은 여행자가 사진을 찍었던 명소 지점에 섰다. 기대했던 감탄과 감격을 자신도 동일하게 느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무지개산이 주는 감동과 감탄이 더해지면 그동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불했던 비용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거라는 기

대가 있었다. 그 여행자는 그 멋진 풍경을 감동으로 맞이하고자 했다. 밀려올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기대하면서 무지개산을 두 눈으로 마주했다. 그런데 그 여행자는 감동보다 실망감을 더 크게 느꼈다. ‘내가 이것을 보려고 이곳에 왔나?’라는 허탈한 감정도 들었다. 직접 마주한 무지개산은 아름답게 색깔해진 놀라움을 선사하기보다 다소 덜 채색된 모습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긴다. 실망감을 뒤로 하고 여행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에 색을 더하고 보정을 했다. 흐리고 탁해서 다소 아쉬웠던 풍경이 정말 멋지고 색이 분명한 꿈에 그리던 무지개색을 가진 산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간혹 사실적 모습보다 필터링을 거친 사진이나 영상물에서 감동을 얻는다. 현실은 흑백이 섞여 있지만,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 공되는 결과물은 세상에 없는 멋진 모습을 선보인다. 그 여행자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마주했던 무지개산과 함께 아름답게 색이 더해진 사진과 영상 작업물일 것이다. 현실의 모습도 간직하고, 아름답게 다듬은 사진 속 무지개산도 담게 될 것이다.

여행지뿐 아니라 많은 환경에서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도 중요하다. 실제 경험도 중요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덜 색칠된 삶이라고 실망하고 낙담만 하고 있다면 숨겨진 무지개색의 이름

다움을 결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덜 색칠된 모습이고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라도 긍정적인 해석을 거치면 착착한 현실이 오히려 멋진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혼의 이상과 현실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 전 많은 사람이 이상적인 결혼을 꿈꾸고 기대한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게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라는 관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과 즐거움, 낭만을 꿈꾼다. 동화 속에 나오는 왕과 왕비가 될 것 같은 기대를 안고 결혼의 문에 들어간다. 무지개를 손에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껏 안고 결혼서약을 한다. 자신의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확신 있게 “그렇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사실은 결혼에 대한 이상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혼은 이상적인 면도 분명 있지만, 현실을 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아름다운 무지개산을 기대하면서 결혼이라는 산에 도착했는데 감동과 감격보다 현실적인 압박감과 책임져야 할 일상으로 인해 불평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현실적인 삶과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기대가 충돌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적인 기대는 온전히 포기하고 현실만 살아야 할까? 아니면 현실과 함께 여전히 이상과 낭만을 꿈꾸고 기대하는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까? 당연히 이상과 현실을 둘 다 포용하면서 사는 삶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다. 힘의 소진되도록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부부의 낭만과 이상을 기대하는 게 필요하다. 포토샵 장인의 손길을 거치면 원본 사진은 놀랍도록 멋진 작품이 되고, 그 가치 또한 치솟는다. 현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도 믿는 자의 믿음과 기도의 호흡을 거치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떨림과 감사가 사라지고, 현실의 짐만 남겨진 것 같은 결혼 생활이라고 느껴진다면, 현실을 이상과 낭만으로 바꾸는 보정작업을 거치는 게 좋다. 현실을 이상과 낭만으로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념일에 분위기 좋은 맛집에서 데이트를 즐겨도 좋다.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 격에 맞는 음식이 부부의 결혼 생활을 현실에서 낭만과 이상으로 끌어올려 줄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의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낭만을 끌어올리고, 이상적인 결혼을 경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눠보자(요 2:1~11).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시대를 깨운 ‘진주교회’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
엄한 배움의 길)> 저자)

진주는 1925년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기까지 경상남도의 행정, 경제, 문화 중심지였다. 진주는 평양과 비견되면서 ‘북평양, 남진주’라 불렸다. 지리산에

서 발원한 남강이 아름답고, 남강변에는 비옥한 농토가 펼쳐져 맛과 맛이 어우러진 고장이다. 어디 그뿐인가? 인물 또한 많아서 인문학적 소양이 매우 풍족한 도시다.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이 남강변 진주성에서 있었다. 진주성에는 논개의 의로운 죽음을 증명하는 축석루와 의암(義巖)이 있다. 진주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일제강점기 기근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많은 재산을 내놓은 박헌경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 되었다. 진주 남동쪽 승산은 LG, GS그룹을 창업한 창업주들이 태어난 마을이고, 지수초등학교는 삼성, LG, GS, 효성그룹 창업주들이 다녔다. 소싸움으로 유명한 만큼 우시장이 성행했었기에 소고기 요리 중 하나인 육회비빔밥도 유명해졌다. 진주냉면은 전국에 이름난 냉면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진주는 경남의 핵심 지역이었기에 선교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진주에서 선교사역이 성공적으로 안정된다면 주변(하동, 산청, 함양, 남해, 고성, 사천, 의령)으로



확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되었다. 지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신문물을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복음도 따라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1905년 호주 최초 의료선교사였던 휴 커렐(Hugh Currel, 한국명 거열휴, 1871~1943)의 요청으로 진주선교부가 설립되었다. 휴 커렐은 부산 선교사역이 안정을 얻자 동역자 박성에 부부와 함께 진주로 자리를 옮겼다. 북문 안에 자리를 잡고 시약소(진료소)를 열어 주민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초가 10칸을 사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진주교회의 시작이었다. 1906년과 1933년 예배당을 거듭 건축해야 할 만큼 교회

성장이 빨랐다.

휴 커렐은 의료와 교육 선교를 동시에 시작했다. 1913년 경남 최초의 병원인 ‘배둔병원’을 설립하고 의료혜택을 베풀었다. 호주 장로회 소속인 페이든(Paton) 여사를 기념해 ‘배둔병원’이라 했다. 남녀사립학교인 ‘광림학교’와 ‘시원학교’도 설립해 신학문을 가르쳤다. 1916년에는 유치원을 개원했고, 소년회를 조직해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을 줬다.

1909년 라이올(D. M. Lyall, 한국명 나대벽) 선교사는 일반인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며 차별을 없앴다. 그리고 백정들도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학교 문을 열었다. 그러자 15명의

백정이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나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며 많은 신도가 교회를 떠나버렸다. 신분제가 철폐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신도들을 찾아가 간곡하게 설득했다니 그들도 마음을 열고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진주교회에서 벌어진 백정 해방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최초 인권운동으로 알려진 ‘형평운동’의 발화점이 된 것이다. 1923년 4월 진주청년회관에서 강상호의 주도로 70여 명의 사회운동가와 백정들이 모여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형평사’를 조직했다. 사회지도자들과 백정들이 하나 되어 ‘신분해방운동’을 일으키자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1년 만에 전국에 지사 12개, 분사 67개가 설치되었다. 그 이후 형평운동은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해 신분 해방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으로 확산해나갔다.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해체되기는 했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시대를 깨우는 역할을 했다.

진주교회 마당에는 2012년 복원한 종과 종탑이 있다. 이 종은 1919년 진주 3.1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13년에는 형평운동 90주년을 맞아 표석을 세웠다. 그 표석에는 ‘진주에서 최초로 일반인들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 본 교회’라 쓰여 있다. 교회에서 100m 떨어진 공원에 배둔병원과 광림학교 터를 알리는 표석도 세웠다. 교회 왼편에는 비전관을 설립하고 ‘커렐 메모리얼 비전센터’라 이름 지었다. 비전관 6층에는 교회역사실이 마련되어 있다.

좋은 공연 추천

현숙한 자들이 부르는 참된 사랑과 용기의 노래



허원희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화창한 봄날,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계절에 뮤지컬 ‘루쓰’를 보러 갔다. ‘루쓰’는 성경에 나오는 룯기를 각색해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는 뮤지컬이다. ‘추수밭의 로맨스’라 불리는 룯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작가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내심 궁금했다. 원래 룯과 보아스의 로맨스는 추수밭에서 일어나는데, 이 뮤지컬 장면 대부분이 숲속의 커다란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일어난다.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나무다. 마을 앞 보호수같이 웅장하게 뻗어 있어서 그 아래에서 모든 축제와 예식들이 거행된다.

기존의 여느 로맨스와 마찬가지로 남녀 주인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극복해야 한다.

보아스는 가나안 여인 라합과 12 정탐꾼 중 한 명인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전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룯 역시 이방 여인이며 과부로서 보수적인 히브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지기가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친족구제법’이라는 히브리 사회만의 독특한 풍습으로 두 사람은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아비람이라는 정적이 보아스와 룯의 관계를 파탄내고자 했는데, 악인은 자기가 처놓은 덫에 걸려 자멸하게 된다. 극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나오미가 불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룯과 감옥에 갇혀 있는 보아스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다. 마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나고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 나오미는 두 사람의 사랑을 성사시키는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다.

뮤지컬 ‘루쓰’는 단순한 남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극 전체에 ‘헤세드’가 가득하다. 헤세드란 ‘은총’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를 말한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팔처럼 사랑해 은총을 베풀고, 룯은 늙은 시모를 끝까지 섬기며 은총을 베풀다. 보아스는 룯의 모습에 감동해 그녀를 아내로 삼는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은 주인공 모두에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품에 안고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쓰디쓴 인생을 축복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을 내린다.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는 장차 왕으로 오실 이의 표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이자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의 선물이다.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은 룯기가 역사서에 포함되면서 사시기 다음에 나오지만, 히브리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룯기가 잠언 다음에 나온다. 잠언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표상이 바로 룯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룯이 왜 현숙한 여인일까? 늙은 시모를 끝까지 섬기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나...”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과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 룯은 시모인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 보아스가 룯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도 룯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숙한 여인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뮤지컬 ‘루쓰’는 탐욕으로 오염된 사회에 현숙한 자들이 부르는 참된 사랑과 용기의 노래라 생각된다.



뮤지컬 ‘루쓰’ 포스터



지난해 J4U청년부 수련회.

말씀, 기도, 예배로 영성 충전!

4월과 5월 대학청년부 공동체별 수련회

말씀과 기도, 예배로 청년들의 영성을 충전해줄 대학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된다. 대학청년부 수련회는 4월과 5월 공동체별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4월에는 W와 J4U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된다. W청년부 수련회는 ‘The

Word’를 주제로 4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영산수련원(파주시 조리읍 등원로391번길 40)에서 열린다. 2박 3일 동안 <베드로전후서>를 통독하며 말씀을 나눈다. 정한효 목사가 설교한다.

J4U청년부 수련회는 ‘Balance(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하여)’를 주제로 4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소

망수양관에서 진행된다. 김현미 목사, 김명선 전도사, 송동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5월 5~7일 허브대학부 영산수련원, CH PLUS청년부 동산기도원, 5월 12~14일 하늘대학부 소망수양관, Pole2대학부 대학로 이룸에서 수련회가 이어진다. 이 외 대학청년부 공동체 수련회는 하반기에 열린다.

문의: 02-570-7521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도하는 청년들!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화요성령집회

대학청년부 홀리스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재, 여의도, 대학로, 광화문, 강남 등지에서 한다. ‘양재 홀리스타(양재 2부 새벽예배)’ 오전 6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여의도 홀리스타’ 오전 6시 30분 여의도 정곡빌딩 4층, ‘대학로 홀리스타’ 오전 6시 30분 한성대 에듀센터 2층 안디옥홀, ‘광화문 홀리스타’ 오전 6시 45분 풀바셋 코리아 나호텔점, ‘강남 홀리스타’ 오전 6

시 30분 만렙커피 강남역점에서 열린다.

대학청년부 4월 화요성령집회는 ‘영적 모멘텀’을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4월 11일 정한효 목사 ‘견고한 믿음’(마 7:21~27), 18일 최성민 목사 ‘온전한 인내’(약 5:7~11), 25일 이서진 목사 ‘진실한 사랑’(요일 3:13~24)을 주제로 설교한다.

평택, 러브소나타 화관 만든다

5월까지 화관 1천 개 제작 예정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러브소나타 화관 1천 개를 제작하고 있다.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만든 화관은 올해 10월 11~12일 일본 미야기현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 미야기 집회에서 사용한다.

평택 성도들의 러브소나타 화관 제작 봉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진행된다.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 담임)는 “일본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570-7414

성경적 재정관과 계획 돕자!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과정

사회선교부에서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과정에는 성경적 재정관리, 가계부채 상담, 재정상담 등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채탈출119’는 전문기관과 함

께 성도들이 성경적 재정관과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한다.

오종규 팀장은 “교회에 재정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다”면서 “관심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의: 010-5550-3655

이주민선교학교 훈련생 모집

이주민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4월 1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이주민선교학교는 국내 이주민 선교에 관한 5대 관점과 권역별 종교 상황, 문화, 관습들을 살펴보면서 타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고, 선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문의: 010-5780-8410

‘어린이부모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어린이부모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2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어린이 5만 원, 부모 5만 원). 일일 캠프비(1인당 3만 원)는 별도다.

어린이부모하트스쿨에서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의사소통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다.

문의: 010-4528-0477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양재 금요심야예배 오후 10~12시

4월 양재 금요심야예배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정적인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양재 금요심야예배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에서는 14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마 6:10)’, 21일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마 6:11)’, 28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마 6:13)’를 주제로 전신익 목사가 설교한다.

문의: 02-570-7469

4월 16일 선한울타리 세미나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선한울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4월 16일(주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아이홀(신관 2층)에서 진행된다. 보육원 퇴소 청년 등 위기 청년 등을 돕고 싶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육원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을 돕고 있다. 보육원 퇴소 청년들에게 숙소 제공, 보육원 아동들과 결연 및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파키스탄국제대학 자비랑 교직원 모집

파키스탄국제대학(Pakistan Global Institute; PGI)에서 자비랑 교직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수학, 통계학 전공 교수(박사학위 소지자) 및 전산실장, 웹디자이너, 한국어 강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자격증 1~3

급 소지자)다. 파키스탄국제대학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학’을 목표로 파키스탄 최초 외국인 이 설립한 대학교다.

문의: 010-8201-7565

jsjstar2@hanmail.net

3월 세레자

■양재 노재환 730103 이혜진 821128	김병국 임기선 220415 김광성 김지윤 210619 손하은 210619 손상기 이지연 220215 송예준 220215 송근화 표수진 220715	신영민 표진옥 220813 오택식 최은지 171121 이기성 이 연 190112 이아린 190112 이기성 이 연 211015	이주호 서보람 210719 이정원 허윤선 220101 정찬일 조해리
---------------------------	---	--	---------------------------------------

예수사랑부 박혜신 작가 개인전

4월 23일까지 서빙고 신관 카페

예수사랑부(성인 발달장애인 예배공동체) 박혜신 작가 개인전이 4월 23일(주일)까지 이어진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카페에 작품 14점을 전시하고 있다.

박혜신 작가는 2005년 첫 개인전 ‘내 친구들’ 이후 국내외 많은 곳에서 초대전과 특별전 등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 에이전시 ‘디스 에이블드(THISABLED)’ 소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희 권사(박혜신 작가 어머니)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말라위 태풍 피해지역 지원

NGO 더멋진세상, 이재민 캠프 운영 및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3월 15일(수) 아프리카 말라위를 강타한 태풍 ‘사이클론 프레디’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 태풍 ‘사이클론 프레디’로 670명 이상이 사망하고, 530명 이상이 실종되는 등 말라위 전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3월 29일(수)과 30일(목) 말라위 블랜타이어 지역 4개 이재민 캠프에 1,400여명 분량의 구호품을 지원했다.

카페니(Kapeni) 시니어 추장은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세례 간증



/ 정선화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

어린 시절 고모를 통해 교회를 접했다. 그러나 커가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교회는 늘 나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였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다. 주변 친구들의 권유와 도움에도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인생의 성공이 최고의 비전이라 믿으며 20대를 보냈다. 거창한 앞날을 기대하며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2018년, 성공을 쫓아 오래 일하던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을 직접 맡게 되었다. 30대 초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무겁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열심히 살아온 그 동안의 수고가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했다. ‘성공의 종착지가 드디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성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은 만만치 않았다. 많은 직원을 책임져야 했고, 회사의 기대치도 충족해야 했다. 그 과정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였다. 겉으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성공의 길을 탄탄히 걷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도 늘 나의 자리는 위태롭고 어려웠다.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만 쌓여가며 어떻게든 버티며 살게 되었다. 너무 답답하고 무서웠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교회를 다시 찾았다. 눈물이 났다. 예배시간마다 위로를 받았다. 성공하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찾던 삶은 화려하고 달콤한 듯 보였지만, 정작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더니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일도, 사람도, 욕심도, 성공에 대한 욕망도 자연스레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되었다. 하나님은 평생 믿음의 동역자인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늘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믿음의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

지금은 화려한 성공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겸손하고 검소하지만, 마음은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변모됐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더 바라는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히 서기를 늘 기도한다. 평안과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양재 금요심야예배 스태프 간증



/ 이은숙 집사(양재B공동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남편과 친구, 외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를 많이 했다. 그때 보낸 하나님과의 시간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며 깊은 교제를 했다. 하나님은 지난 20여 년 동안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강함, 고집과 욕심, 거짓과 게으름 등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10여 년 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믿지 않던 남편과 친정 식구들을 온누리교회로 부르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 남편은 지금 주의빛성가대와 공동체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다. 올해부터는 금요심야예배도 함께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

지난해 8월 어머니가 98세에 소천하셨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우리 부부는 기독교장으로 장례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은 6남매의 막내다. 남편을 제외한 5명 모두 불교 신자다. 어머니 임종 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5남매가 어머니 장례에 어느 스님을 모실까 의논하고 있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어머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기독교장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도사인 손자(둘째 아들)가 할머니 장례를 인도하게 하자고 담대하게 말했다. 가족들이 당황했지만 가장 큰형님이 알았다고 말씀 해주셨고, 다른 형제들도 동의 해주었다.

장례 이후 추석에도 제사가 아니라 가족들과 추모예배를 드렸다. 그날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5남매 중에 세 분의 형님 부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올해 설날 시골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큰형님이 어머니 기일에 맞춰 돌아가신 아버님도 제사를 안 지내고 추모예배로 함께 드리자고 말씀하셨다. 섬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섬기며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기도가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으면 모든 문제는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임을 믿게 된다.

■ 내가 만난 하나님



/ 이승민 성도(조리과학 박사)

하나님과 식재료

어릴 때 내 꿈은 이화여대 진학이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 명문대는 기독교 학교라 매주 채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채플 시간에 가장 은혜받은 말씀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다. 믿고 기도만 하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계획하고 실천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99% 노력해도 1%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궁중음식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다가 ‘왕의 식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진상품들로 만들어진 궁중음식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12첩 반상으로 차려지는 ‘왕의 식사’를 조선 시

대 마지막 상궁에게 궁중음식을 전수 받은 분에게 배웠다. 사실 나의 계획은 여기까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리과학 분야에서 음식 조리법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까지 예비해놓으셨다.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경험했다. 나를 준비시키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도 허락하셨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록달록 색색의 식재료를 만드셨을까? 식재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감탄한다. 식재료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강의를 하고 있다. 식재료의 조합은 늘 흥미진진하다. 역시 식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도 나는 냉장고에서 알록달록 다양한 식재료를 꺼내 ‘한 그릇에 담은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준비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

■ 유아세례 간증



/ 부: 박재민, 모: 윤주영, 자: 박윤하, 박윤우)

쌍둥이와 신앙훈련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주실 거라는 생각은 나의 큰 교만이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는데, 1차에 유산했다. 큰 상실감에 잠겨있다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3:5)라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왔다. 참 오래 걸린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두 명이나 허락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나는 쌍둥이를 품음과 동시에 “양가 모두 지방에 있고 남편과 저뿐인데 경험 없는 우리에게 두 명이나 주시다니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생명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감사하다는 건지, 감사하지 않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도를 했다. 내가 쌍둥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그래도 소중한 생명 둘이나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신 기간을 보냈다.

몸은 고되지만 둘이 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육아는 힘들다. 남편은 일하러 가고 홀로 아이들을 키울 때 한 명만 세심하게 챙길 수 없어서 가슴이 미어질 때도 많다. 내가 아무리 100% 마음을 쥐고 아이는 배속부터 부모의 사랑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찌지 걱정했다. 한 명을 안고 있을 때 다른 한 명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엄마, 저는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가 많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윤하와 윤우가 평생의 동역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최우선순위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란다. 태명이었던 예뻐셀 하나님을 따라 아이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장로칼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께



김광동 장로
(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을 섬기고 있는 김광동 장로입니다. 지난 3월 18일과 19일 실시한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눈물의 기도와 적극적인 성원으로 참여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지난 2010년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축복을 나누자’는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2년 동안 아프리카, 중남미, 서남아시아 등 35개국을 찾아가 굶주리고 병들고 재난당한 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곳에서 대물림되던 빈곤을 퇴치했고, 보건의료와 교육, 농업개발 사업과 교회 건축 등의 선교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마 24:6-7).

이 말씀처럼 수많은 지구촌 이웃들이 굶주림, 전쟁, 재난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 보급자리를 떠나 지구촌 이웃들을 앞장서서 돕고 있습니다.

특히 NGO 더멋진세상은 난민들을 섬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몰도바와 루마니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촌

을 운영하거나 돕고 있습니다. 난민촌이 고향인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과 영양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긴급구호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곳곳에 만연해있는 질병과 빈곤퇴치 등에 앞장설 것입니다. 의료보건 환경개선과 농업환경 개선으로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특히 재난긴급구호팀을 편성해서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빠르게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강도 만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후원하고 싶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서 후원하게 됐어요. 적지만 제가 매달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후원을 하고 싶어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을 보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NGO 더멋진세상이 앞장서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을 해주신 성도님들의 목소리입니다. 용돈을 쪼개 NGO 더멋진세상을 후원하고 싶다고 한 어린이 성도의 고백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NGO 더멋진세상이 KOICA와 함께 3년 동안 말라위에서 약 15억 규모의 지역 영유아를 위한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영유아 교육을 위한 센터 건축을 시작으로 현지 교사 역량 강화하고, 학부모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전 세대에 걸쳐 전인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권사칼럼

개구리의 정체성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3월이 끝나가는 터라 달력을 넘기려다 달력에 그려진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김경균 화가의 그림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청개구리 형제들의 여름 노래’다. 그림 옆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른하늘을 보고도 노래하지. 곧 풍성히 내려올 빗줄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청개구리 하면 옛날 동화책에서 읽었던 비가 오면 물가에서 후회하며 우는 그 청개구리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감탄했다. 청개구리가 마른하늘을 보고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었던 것은 곧 여름이 되면 풍성히 내려올 빗줄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메마르고 암담한 상황의 연속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혹시 바깥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방구석에 앉아 나갈 궁리를 하지 않는 청개구리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두려움에 잠식되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풍성히 내려올 빗줄기를 기대할 수 없다. 어두컴컴한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기대와 믿음, 용기로 나아가야 한다. 달력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듯 여름도 반드시 온다. 어둠을 건어낼 짙은 햇빛과 메마른 땅을 적실 풍성한 빗줄기가 여름을 데리고 온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땅속처럼 컴컴하고 답답한 현실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놀라워하며 춤을 추고 노래 부를 수 있다. 암담한 현실에 처해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찬양하

는 일이 우선이다. 곧 풍성히 내려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이다.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어렸을 적 많이 불렀던 동요다. 왜 아들 손자, 며느리만 모이고, 딸과 사위는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다. 그 당시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빠진 듯하다. 어쨌든, 개구리 온 가족이 모여서 듣는 사람 없어도 밤새도록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개구리의 정체성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주구창창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개구리가 되기를 소망했다.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사 59:21).

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읊조리고 선포하는 일을 많이 했다. 제각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퍼스트 펄컨처럼 퍼스트 청개구리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자녀와 다음세대까지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나는 개울가의 올챙이가 꼬물꼬물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나오다가 폴짝 개구리가 되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다. 올챙이들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자.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 마라나 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신앙에세이



이형목 전도사
(서빙고 차세대)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한다. 사순절의 첫날은 항상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를 ‘재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 부른다.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카락에 물에 적신 재를 바르며 회개하는 순서를 가지기도 했다.

청년 시절 처음으로 재의 수요일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의 존재가 재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우는 회개 의식을 가져온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에게도 그러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집 앞에 있는 텃밭을 가꾸고 남은 잡초들을 모아다가 불태울 일이 있었다. 불에 타고 남은 재를 봤더니 재의 수요일이 생각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재와 같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를 덮어쓰는 게 아니고 이마에 바르는 것이었고, 그 재는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한다고 했다.

매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이 되면 나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차세대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그때 경험했던 재의 수요일의 은혜를 나눴다. 그리고 금식과 미디어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기를 결단했다. 먹는 것과 보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신앙 성장을 돕는 장치

절제합니다. 그들은 씹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씹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고전 9:25).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걸음을 온전히 마치기 위해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극적이고 다양한 먹을 것과 볼 것들 가운데 우리의 절제는 큰 도전이고, 싸움이 될 수 있다.

순종의 기억과 믿음의 결단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장치다. 사순절이라 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일상에서 금식과 미디어 절제라는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순간 무덤덤해진 나의 마음이 재를 뒤집어썼던 그때의 간절함을 기억하며 다시금 새롭게 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이 장치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가정신앙 활동으로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매

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짧은 말씀 구절을 필사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다. 이 활동 역시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 성장을 도와줄 좋은 장치다. 처음에는 짧은 성경 구절을 보며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며칠 못가 하루 이틀 놓치기도 했다. 분명 혼자 했으면 여기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했기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펼쳐서 매일 말씀을 필사하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신앙 성장을 돕는 장치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질 때 새롭게 되는 기억을 또 하나 가지게 된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성경쓰기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 결단을 통해서 다음세대 친구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x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얼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중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주 목요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 (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010-8285-6435 온누리M센터 물품 기증 요청 모집: 디지털카메라, 수동카메라, 노트북, 컴퓨터(포토샵 교육용) 용도: 귀국하는 아주민 형제들의 사진과 개업을 위한 기초직업훈련 문의: 안산 온누리M센터(010-7550-242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 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사원 모집 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학력: 2년제 이상 자격: 경력 3년 이상 우대: 기업회계 경력자 2. 서빙고자산관리팀 사원 채용 업무: 부동산자산관리 학력: 고졸이상 우대: PC활용 능력자 3. 서빙고총무팀 사원 채용 업무: 노무, 인사관리 학력: 고졸 이상 우대: 엑셀 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양 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감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형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의료선교팀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3월 31일 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이선희 권사(010-318-0607), 조동욱 목사(010-7432-0195) * 의료 선교 사역에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성도님을 적극 초대합니다.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부 천 0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 전 0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중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 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다음세대를 위한 발걸음

RUN fondant

달려라풍당 후원챌린지

기간 /

4.29(토)~5.28(주일)

접수 /

3.25(토)~4.23(주일)



참가신청하기

종목 /

걷기, 러닝, 라이딩, 등산, 인라인 등

후원방식 /

챌린지 기간 내 개인별 누적 거리만큼 후원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10-98304

(재)온누리선교재단

문의 /

더 자세한 내용은 CGN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02-796-2243

CGN 후원커뮤니케이션팀



2023 달려라풍당의 후원금은
풍당 키즈 콘텐츠 <고고바이블> 글로벌 버전,
<우리몸으로, 풍당!>, <바이블북:성막대작전>
제작과 풍당교회학교 사역 지원에 사용됩니다.

주최: CGN

주관: CGN 운영위원회

협력: 온누리교회, 이무송(홍보대사)

RUN
fondant

풍당